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Yeokdaemyeonggam*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Library

朴文烈 (Park, Moon-Year)*

◁ 목 차 ▷

1. 緒言	4.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
2. 「歷代明鑑」의 撰集과 刊行	4.1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의 內容
2.1 「歷代明鑑」의 撰集	4.2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의 特徵
2.2 「歷代明鑑」의 刊行	5. 結論
3. 「歷代明鑑」의 收錄 範圍와 人物	<참고문헌>

< 초 록 >

본 研究는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을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歷代明鑑」은 燕山君 5년(1499) 12월에 洪貴達과 權健 및 成倪이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帝王后妃明鑑」 등을 底本으로 하여 重撰된 도합 27권 巨帙의 鑑戒書이다.

(2) 「歷代明鑑」의 체제는 <君鑑>·<后妃鑑>·<臣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鑑別로 다시 ‘善可爲法’과 ‘惡可爲戒’로 세분하여 32朝 214人的 ‘善可爲法’과 27朝 107人的 ‘惡可爲戒’를 수록하고 있다.

(3) 「歷代明鑑」은 燕山君 6년(1500) 7월에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이후 더 이상의 刊行은 없었으며, 그 연유는 廢主時期的 撰集이라 忌避된 때문이었던 듯하다.

(4) 現傳하는 光山金氏 禮安派宗家(寶物本)와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2處의 「歷代明鑑」으로는 권5-7을 제외한 部分의 精確한 本文은 알 수 있으나, 缺失된 권5-7의 部分의 精確한 本文은 알 수 없다.

(5)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은 寶物本에서 缺失된 권4의 3朝 10君主 87條目에 해당하는 ‘善可爲法’의 本文이 殘存되고 있을 뿐 아니라 連山君 8년(1502) 3월에 李滋에게 內賜된 內賜記와 內賜印이 있어 그 價値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評價된다.

(6)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은 寶物本에서 缺失된 原文의 補完이 가능한 點, 內賜本인 點, 朝鮮初期 金屬活字의 刊行本인 點, 傳來過程과 所藏處가 精確한 點 등에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精確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要語: 歷代明鑑, 洪貴達, 權健, 成倪,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內賜本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7년 6월 2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7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Yeokdaemyeonggam*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Librar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Yeokdaemyeonggam* (歷代明鑑) is a kind of record book which contains exemplary words and behaviors of persons in the Chinese dynasties to educate our sovereigns and loyal retainers, by revising and compiling several publications, *Yeokdaegungam* (歷代君鑑), *Yeokdaesingam* (歷代臣鑑) and *Jehanghubimyeonggam* (帝王后妃明鑑), as original texts. Hong Gwi Dal (洪貴達), Gwon Geon (權健), and Seong Hyeon (成倪) completed a set of book as 27 volumes in December of the 5th year of King Yeonsan's reign (1499).

(2) *Yeokdaemyeonggam* is composed of three parts named *Gungam* (君鑑), *Hubigam* (后妃鑑) and *Singam* (臣鑑), and each part is subdivided into two sections, 'good manners' and 'bad manner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The section 'good manners' contains records on 214 persons of 32 Chinese dynasties, likewise, the section 'bad manners' includes notes on 107 persons of 27 Chinese dynasties.

(3) *Yeokdaemyeonggam* was last published with the First Cast of Gapinja Type(初鑄甲寅字) in the 6th year of King Yeonsan's reign (1500), and there was no additional edition after then. As the King Yeonsan was dethroned, it might be avoided to compile publications which had been produced at the periods of his reign.

(4) According to analyzing the copies of *Yeokdaemyeonggam* owned by the Gwangsan Kim's Yeanpa Family (光山金氏 禮安派宗家) and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Library, the entire full text of the book can be confirmed except for the lost parts from vol.5 to vol.7.

(5) The copy of *Yeokdaemyeonggam* own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Library preserves the main text of the section on 'good manners', as well as the 87 articles on the 10 emperors of 3 Chinese dynasties included in Volume 4, which is the lost volume of the copy owned by the Gwangsan Kim Yeanpa Family (which has already been designated a National Treasure). The copy also contains the record and seal impression denoting that the copy was bestowed by King Yeonsan to Yi Goeng (李滋) in March of the 8th year of King Yeonsan's reign (1502). For these reasons, the copy holds significant value.

(6) The copy of *Yeokdaemyeonggam* own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Library holds significant value warranting a Local Cultural Property designation and further research,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in the future,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copy provides the lost texts from the *Yeokdaemyeonggam* copy that was previously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it is a copy bestowed by King Yeonsan; the copy was printed using the metal typ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e history of its inheritance and the place where it is held can be clearly certified.

Key words: *Yeokdaemyeonggam*, Hong Gwi Dal, Gwon Geon, Seong Hye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Library, Naesa-bon(books bestowed by kings), Yi Goeng

1. 緒言

「歷代明鑑」은 연산군 5년(1499) 12월에 당시 中樞府事였던 洪貴達(1438-1504)이 왕명을 받들어 兵曹參判 權健(1458-1501)과 工曹判書 成倪(1439-1504) 등 당대의 名臣들과 함께 中朝 역대의 君主와 后妃 및 臣下들의 規範이 될 만한 言行과 事跡 등을 選取하여 後世에 規戒로 삼을 수 있도록 撰集된 도합 27권 巨帙의 鑑戒書이다.

「歷代明鑑」의 體制는 <君鑑>과 <后妃鑑> 및 <臣鑑>으로 대별되고 다시 ‘善可爲法’과 ‘惡可爲戒’로 세분되어 있으며, 內容은 中朝의 唐·虞·夏·商·周·秦·列國·漢·三國·晉·南北朝·隋·唐·五代·宋·遼·金·元·大明 등 각 朝代別로 도합 321인의 言行과 事跡이 수록되어 있다.

「歷代明鑑」은 연산군 6년(1500) 7월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이후 더 이상의 刊行은 없었던 듯하며, 현재 본 版本은 慶北 安東의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¹⁾와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²⁾ 등 2처의 소장예 불과하다. 이들마저도 전질 27권 중 寶物本은 권4-7의 1책이 缺失이며,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은 권5-27이 缺失되어 권1-4의 1책만이 傳存하는 殘本이다.

특히,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에는 內賜記와 內賜印이 있을 뿐 아니라, 권4에 수록되어 있는 본문의 內容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寶物本의 보완이 가능한 귀중한 판본이다.

본 연구는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에 수록된 內容과 특징에 관하여 고찰하고 정리함으로써 「歷代明鑑」 研究의 기초자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歷代明鑑」의 撰集과 刊行

2.1 「歷代明鑑」의 撰集

연산군 5년(1499) 12월에 왕은 신하로서 節義가 있는 인물이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고 帝王과 后妃들도 賢否의 여지가 있으리라는 판단 아래, 大提學 洪貴達에게 그들의 言行과 事跡을 분류하여 1길로 撰集하고 열람에 편리하도록 할 것을 하명한 바 있었다.

이에 洪貴達이 帝王과 后妃는 이미 中朝에서 찬집된 「明鑑」이 있어 增損하면 될 것이나 신하들의 賢否는 아직 撰集된 것이 없으므로 새로 찬집하여 進達하겠노라³⁾고 약속하면서부터 「歷代明鑑」의

1)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3, 8-27).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所藏本, 寶物 第1019-1-5號>. 以下の 本文에서는 이 版本을 ‘寶物本’으로 略稱하고자 한다.

2)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4).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以下の 本文에서는 이 版本을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으로 略稱하고자 한다.

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燕山君 5年 12月 1(乙酉)日條. “傳于大提學洪貴達曰 … 人臣有節義者固鮮 至於帝王后妃 亦有賢否 卿其類編爲一帙 以便觀覽 貴達啓 帝王

撰集은 시작되었던 듯하다.

洪貴達의 이러한 啓聞이 있던 1개월 뒤인 연산군 6년(1500) 정월에는 『歷代明鑑』의 撰集은 물론 弘文館의 官員들을 동원한 讎校까지도 완료되어 印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⁴⁾ 이어서 6개월 뒤인 동년(1500) 7월에는 洪貴達과 權健 및 成倪 등이 마침내 『歷代明鑑』의 撰集과 印行을 완료하여 왕에게 進達하기에 이르렀다.⁵⁾

『歷代明鑑』을 撰集한 배경과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는 洪貴達의 <歷代明鑑序>와 成倪의 <歷代明鑑跋>에 잘 나타나고 있다.

<歷代明鑑序>는 『歷代明鑑』의 권두⁶⁾와 洪貴達의 문집인 『虛白亭文集』⁷⁾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聖上께서는 국가의 대업을 이어받아 지키면서 오로지 帝王들이 마음을 밝히고 다스림을 나타낸 要訣과 역대의 치란과 흥망의 자취가 經史에 구비되어 있음을 살피신 후에, 가장 먼저 經筵을 열고 臨御에 힘쓰시어 무릇 修己와 治人의 도리를 두루 살펴 강구하셨습니다. 옛적의 明君과 의로운 임금들이 충명을 널리 열고 智慮를 증익시켜 至治를 도모함에는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니, 이 어찌 善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아! 弘治 12년(1449) 겨울 12월 [모]일에 공조판서 신 成倪와 병조참판 신 權健 및 신 洪貴達을 특별히 불러 '역대의 君臣 중에 法戒가 될 만한 인물이 적지 않으나 모두 史籍에 산견되어 마음과 눈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음을 내가 심히 병통으로 여기니, 그들 중에서 善惡이 현저하여 勸戒될 만한 인물들을 부류별로 찬집하여 진상하라!'고 하명하셨습니다. 신들이 명을 받고 물러나 中朝에서 찬집된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우리 조선에서 찬집된 『帝王后妃明鑑』 등을 찾아낸 뒤에, '이러한 서적들이 있어서 별도로 찬술하지 않아도 될 듯하옵니다. 다만 그 중 어떤 인물은 별로 勸戒에 관계되지 않은 인물도 있고 현저하여 勸戒가 될 만한데도 脫漏된 인물도 있으며 또한 문장이 번잡하고 언사가 막혀 모를지기 筆削해야할 인물도 있어, 이렇듯 바로 용납되기는 어려울 듯하옵니다.'고 啓聞하자, '그대들이 다시금 찬집하라!'고 하교하셨사옵니다. 이에 신들이 앞선 몇 가지 서적들을 바탕으로 역대의 本史를 참고하여 그 切要를 撮錄하고 繁蕪를 刪削하며 혹은 전체의 조목을 刪去하고 혹은 새로운 文段을 첨입시키는 등 切要가 勸戒될 만한 인물들만으로 27권으로 釐正하여 그 이름을 『歷代明鑑』이라 하였사온데, 奉進을 마치자 신에게 그 '序'를 짓도록 하명하셨습니다.

신은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古世'는 '今世'의 거울이고 '前代'는 '後代'의 法이며, 善도 우리의 스승이고 惡도 우리의 스승인 것이옵니다. 殷朝의 鑑戒는 夏后朝에 있었던 것이며, 周朝의 鑑戒도 다른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만약 殷·周의 子孫들이 世世로 그것을 감계로 삼았다면 그 歷年이 600년·800년 만에 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秦朝는 周朝를 承朝하였으나 秦朝에는 道가 부족하였으며, 漢朝가 秦朝를 鑑戒로 삼지 않고 晉朝도 漢朝를 鑑戒로 삼지 않아 宋·元朝에 이르도록 앞서 가던 수레가 顛覆되어도 뒤따르는 수레가 그것을 鑑戒로 삼지 않은 것처럼 서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옵니다. 아! 슬픈 일일 따름이옵니다. 『孟子』의 傳文에서 '君主의 노릇을 하려면 君主의 道를 다하고 신하의 노릇을 하려면 신하의 道를 다하라!'고 한 것은 君臣이 각각 자신의 道를 다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며, 『周易』에서 '가정이 바르면 천하가 안정되리라!'고 한 것은 가정은 국가와 천하의 근본임을

及后妃既有明鑑 當更增損 但臣之賢否 未有編集 當編進。”

- 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1月 21(丙子)日條.
“弘文館副提學洪洞等啓 印出明鑑 既命弘文館員讎校 又命任士洪同監 ….”
- 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7月 28(庚辰)日條.
“工曹判書成倪·知中樞府事洪貴達·兵曹參判權健撰進歷代明鑑.”
- 6)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卷頭. ‘歷代明鑑序’條.
- 7) 洪貴達 著, 『虛白亭文集』.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海君 3(1611)]. 卷2. 序. ‘歷代明鑑序’條.

말한 것이옵니다. 실로 내외와 상하가 고대로 鑑戒를 삼아 善을 보면 추종하고 惡이 들어나면 징계하
서 서로서로 경계하여 각각 그 道를 다한다면 고금과 천하가 어찌 前轍을 밟을 일이 있겠사옵니까.

전하께서 정사에 임어하시어 善治를 소원하신지 7년째인 지금에 善治가 융성하여졌음에도 아직
이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한 일마다 반드시 옛일을 스승으로 삼아 唐虞·三代之 興衰를 기약하시니,
이른바 옛적 善治者들의 道와 똑같은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사옵니까. 비록 그러하오
나, 사람의 마음만은 잠힐 때도 있고 놓일 때도 있어서 일정하지 않으며, 善治는 시작은 있어도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옛적에 宋朝의 太宗이 詔書를 내려 「大平
御覽」 등의 서적을 修撰하여 매일 2권씩⁸⁾을 閱覽하였는데 어찌다 政事로 閱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가가 있는 날 추가로 보충하여 閱覽하면서 ‘서적은 펼치는 것만으로도 유익하니 朕은 수고롭지
않다’고 하였으니, 예로부터 善治를 하려는 군주는 道를 구하는 時急이 이와 같았던 것이옵니다.

신들이 찬집한 보잘 것 없는 이 서적이 어찌 감히 睿覽을 바라겠사옵니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勸懲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옆드려 바라옵건대 聖上께서는 太宗이
여가가 있는 날 추가로 보충하여 閱覽하던 근면함을 탄복하며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시어, 善한
일을 보시면 거룩히 여기시고 不善한 일을 보시면 제거하옵소서. 아무리 궁궐이 깊다고 한들 신료들
도 보고 느끼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이오니, 각자가 修省을 한다면 어찌 治道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또한 子子孫孫 대대로 계승하여 폐지되지 않도록 하신다면 우리나라 역·만년토록
백성의 福祿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있겠사옵니까!

正憲大夫 知中樞府事 兼知春秋館事 知義禁府事 洪貴達은 삼가 序文을 쓰다.⁹⁾

한편, <歷代明鑑跋>은 「歷代明鑑」의 권말¹⁰⁾과 成倪의 문집인 「虛白堂文集」¹¹⁾에 수록되어 있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二卷: 「歷代明鑑」卷4 本文의 “詔史館 所脩太平總類 自今日進三卷 朕當親覽 宋琪等言 窮歲短晷 日閱三卷 恐聖躬疲倦 帝曰 朕性喜書 開書有益 不爲勞也 此書千卷 朕欲一年讀遍 因思學者讀萬卷書 亦不爲難耳 尋改總類名曰太平御覽 又嘗於禁中建清心殿 收藏圖書 以資遊覽 每召邢昺·張奭等 更迭講說 質間疑義 久而方罷 帝之篤好學問 蓋出於天性云”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4. 「太宗」條.>라는 기록이나 文義로 미루어 ‘二卷’은 ‘三卷’의 誤謬가 아닌가 한다.

9)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卷頭. 「歷代明鑑序」條.
“聖上 嗣守丕基 念惟帝王澄心出治之要 歷代治亂興亡之迹 具于經史 乃昔開經筵 孜孜臨御 凡所以修己治人之道 靡不講究 古昔明君 誼辟 所以開廣聰明 增益智慮 圖臻至治者 率用是道 豈不甚善也哉 奧 弘治十二年冬十有二月日 命召工曹判書臣成倪 兵曹參判臣權健 暨臣貴達 若曰歷代君臣 可法可戒者多矣 然皆散見諸史 心目有所不逮 予甚病焉 其類撰善惡之堪爲勸戒者 以進 臣等聞命而退 搜得皇朝出來歷代君臣鑑 與夫本朝所撰帝王后妃明鑑 啓曰有是焉 雖無別撰可也 但其中 或有不甚關於勸戒者 亦有堪爲勸戒而脫漏者 且有文繁語滯 須[宜]加筆削者 是則不容已也 教曰汝其更撰 臣等將前項數[-]本 參考歷代本史 撮其切要刪其繁蕪 或去其全條 或添入新段 要爲勸戒而止 釐爲二十七卷 名之曰歷代明鑑 既奉進 命臣序之 臣竊惟古者今之鑑 前者後之規 善吾師也 惡亦吾師也 殷鑑在夏后之世 周之所當鑑者 亦不在乎他 殷周之子孫 若能世世鑑之 則其歷年當不止六百八百而已 繼周者秦 秦不足道也 漢不鑑秦 晉不鑑漢 以迄于宋元 覆轍相尋而莫之悟 吁可悲也已 傳曰欲爲君盡君道 欲爲臣盡臣道 言君臣當各盡其道也 易曰家人正而天下定 言家者國與天下之本也 苟能內外上下以古爲鑑 見善從之 聞惡而懲 交相戒勸 各盡其道 則古今天下 安有覆車之轍乎 殿下臨政願治 七年于茲 治已隆矣 而猶不自滿 方且事必師古 期底于唐虞三代之盛 所謂與治同道者 其斯之謂歟 雖然人心慘[操]舍之無常 善始者未必有終 可不懼哉 昔宋太宗 詔修大平御覽等書 日覽二[三]卷 若因事或廢 則暇日追補曰 開卷有益 朕不爲勞 自古有爲之君 其求道之急如此 臣等所撰 豈足仰塵睿覽 然其事則未必無補於勸懲 伏願聖上 服太宗日覽追補之勤 念茲在茲 見其善者而思齊焉 於不善則去之 至令宮壺之深 臣僚之衆 莫不有所觀感 而各自修省 則豈不有裨於治道萬萬哉 子孫世世 亦能踵而不替 則我東方億萬年生民之福 可勝道哉 正憲大夫 知中樞府事 兼知春秋館事 知義禁府事 臣洪貴達 謹序 [臣謹序]” <[] 속은 「虛白亭文集」에 收錄된 文章과의 對校임.>

10)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卷末. 「歷代明鑑跋」條.

11) 成倪 著, 「虛白堂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憲宗 8(1842)]. 卷9. 題跋. 「歷代明鑑跋」條.

우리 전하께서 寶位에 오르신지 6년째인 기미년(1499, 연산군 5) 겨울 12월 [모]일에, 지중추부사 신 洪貴達과 병조판서 신 權健 및 신 成倪에게 ‘옛 君臣과 后妃의 言行과 事跡으로 오늘날 본받고 경계할 만한 것들을 撰集하여 鑑戒로 삼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명하셨다.

아!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가 어찌 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무릇 君主가 옛일을 鑑戒로 삼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는 마땅함을 그르치게 될 것이며, 신하가 옛일을 鑑戒로 삼지 않으면 실로 忠誠과 詐術의 분별에 어두워질 것이다. 심지어 后妃의 陰助도 이러한 乾道의 化育을 돕는 것이라면 어찌 옛일을 鑑戒로 삼아야 함을 막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三鑑’이 오늘에 撰成된 연유인 것이다.

明朝 宣德年間(1426-1435)에 『君鑑』을 찬집하고 景泰年間(1450-1456)에 『君鑑』을 찬집하였으니, 모두 翰林의 儒臣들에게 하명하여 唐·虞朝부터 明朝까지 당시의 善惡이 잘 갖추어져 드러나도록 찬집되었던 것이다. 우리 成宗康靖大王께서도 『帝王后妃明鑑』을 찬집토록 하명하셨으니, 거기에는 모두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또한 宣德年間과 景泰年間에는 ‘后妃’까지는 찬집되지 못하고 成廟朝에는 ‘臣道’가 遺漏되었으나, 지금 그 體制를 모방하되 문장의 내용만은 增損시키지 三鑑을 합하여 1질로 편성하고 그 이름을 『歷代明鑑』이라 하였다.

아! 지난날의 聖人들 중에 빛나는 인물이 실로 적지 않았으나, 이른바 그 법칙만은 한가지였던 것이다. 장차 우리 東方에도 舜과 文王과 같은 거룩한 君主가 세상을 다스리고 夔·高·周公·召公과 같은 어진 신하가 보좌하며 內殿에도 嬀와 太姒와 같은 后妃의 德이 펼쳐져 明良한 <廣載>의 歌風과 <關雎> 및 <麟趾>의 教化가 서로 계승되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정스러운 우리 朝廷의 억·만년토록 무량한 아름다움도 반드시 이 『歷代明鑑』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에 있어 어찌 별 도움이 없다고 할 것이겠는가!

正憲大夫 工曹判書 兼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事 신 成倪은 삼가 발문을 쓰다.¹²⁾

이상의 <歷代明鑑序>와 <歷代明鑑跋>을 통하여 볼 때, 『歷代明鑑』은 연산군 5년(1499)에 역대의 君臣 중에서 善惡이 현저하여 勸戒가 될 만한 인물들을 部類別로 撰集하여 進達하라는 왕명을 받은 지중추부사 洪貴達과 병조판서 權健 및 공조판서 成倪 등에 의하여 동년(1499) 12월부터 이듬해(1500) 정월 사이에 찬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撰集者들은 中朝에서 찬집된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조선에서 찬집된 『帝王后妃明鑑』 등을 바탕으로 역대의 本史를 참고하여 그 切要를 撮錄하고 繁蕪를 刪削함은 물론, 혹은 전체의 條目을 刪去하거나 혹은 새로운 文段을 첨입시키는 등 그 切要가 勸戒될 만한 인물들의 言行과 事迹만을 선취하여 27권으로 釐正하고 그 이름을 『歷代明鑑』이라 하였던 것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洪貴達을 비롯한 權健과 成倪 등의 撰集者들이 수개월 만에 巨帙의 『歷代明鑑』을

12)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卷末. ‘歷代明鑑跋’條.
“我殿下 踐祚之六載已未冬十二月日 命知中樞府事臣洪貴達 兵曹參判臣權健 暨臣倪 撰古之君臣與后妃行事之跡 爲今之可法可戒者 用以爲鑑 噫 爲國之道 豈有過於此者也[乎] 夫[使]君而不鑑乎古 則或誤於施措之宜 臣而不鑑乎古 則實昧於忠詐之分 至於妃主之陰助 寔[實]贊乾道之化育 則其可不鑑古爲重乎 此所以三鑑之成于今日也[此三鑑之所以成乎今日也] 大明宣德年間撰臣鑑 景泰年間撰君鑑 皆命翰林儒臣 輯自唐虞 至于國朝 其當時善惡備著 我[-]成宗康靖大王 亦令撰帝王后妃明鑑 皆有所深意存焉 而[-]宣德景泰則靡及於后妃 成廟則亦遺於臣道 今則雖倣其規 而[-]增損其文 合三鑑爲一帙 名之曰歷代明鑑 吁 其光於前聖者固多 而所謂其規則一也 將見我東方舜文御世 [而]夔高周召爲之佐 宮壺之內 亦皆有嬀之德 而明良廣載之風[歌] 關雎麟趾之化 相與[-]悠久而不替 則箕圖[聖朝]億萬年無疆之休 未必不自是書而肇矣 其有補於治道 夫豈少哉 正憲大夫 工曹判書 兼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事 臣成倪 謹跋 [工曹判書 臣成倪 謹記]” < [] 속은 『虛白堂文集』에 收錄된 文章과의 對校임>.

찬집할 수 있었던 것은 中朝에서 찬집된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조선에서 찬집된 「帝王后妃明鑑」 등을 저본으로 삼아 重撰되었던 때문인 듯하다.

中朝의 「歷代臣鑑」은 宣德年間(1426-1435)에 춘추시대 이래로 元朝에 이르기까지 2천여년간의 群臣의 善行惡事를 분류하고 ‘善可爲法’과 ‘惡可爲戒’로 나누어 37권으로 편찬된 것¹³⁾이며, 「歷代君鑑」은 景泰年間(1450-1456)에 역대 聖賢과 賢君들의 事迹을 본받아 帝王의 一言一行이 천하의 師表가 되도록 하려는 목적 아래 三皇·五帝時代부터 元代까지 역대 군주들의 治亂의 行적을 ‘善可爲法’과 ‘惡可爲戒’로 나누어 50권으로 편찬¹⁴⁾된 것이다.

「帝王后妃明鑑」은 成宗 원년(1470)에 崔恒(1409-1474) 등에 의하여 撰進¹⁵⁾된 것으로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后妃明鑑序>에서는 고급 后妃들의 行蹟을 찬집하여 王后의 鑑誡로 삼도록 할 것을 당부한 成宗의 下명으로 傳記를 널리 수집한 뒤에 위로는 唐·虞로부터 아래로는 明朝(高麗)에 이르기까지 善으로 본받을 만한 몇 后妃와 惡으로 경계할 만한 몇 后妃를 選取하여 幾卷으로 분류하고 편찬한 것¹⁶⁾이라 하였으며, 太虛亭 崔恒(1409-1474)의 「后妃明鑑序」에서는 成宗이 太虛亭 자신을 비롯한 申叔舟(1417-1475)·金季昌(1427-1481)·鄭徽(?-?) 등에게 고급의 后妃의 行적을 모아 「明鑑」을 찬집하여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下명을 받고서 위로는 唐·虞에서 아래로는 明朝에 이르기까지 善으로 본받을 만하거나 惡으로 경계할 만한 行적들을 모아 彙集하여 撰進한 것¹⁷⁾이라 하였다.

2.2 「歷代明鑑」의 刊行

이렇게 찬집된 「歷代明鑑」은 燕山君 6년(1500) 정월에 弘文館의 官員들을 동원한 讎校를 거치고

- 13) 宣宗 御撰, 「歷代臣鑑」.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卷頭. ‘御製歷代臣鑑序’條.
“朕惟天生民立之君 而天下至大 民生至衆 必有道德明碩之士 相與翊贊彌綸 以成康濟之功 … 蓋古者群臣有交相助益之義 三代以上 見諸經昭昭矣 春秋以來二千餘年 凡臣之行事 其善惡大槩 間類錄之 總三十七卷 名歷代臣鑑 用賜羣臣 俾時覽省 … 朕之所益於羣臣如此 爲臣亦必有以助益於朕 庶幾明良相與同一 忠厚之至也 宣德元年四月日.”
- 14) 代宗 御撰, 「歷代君鑑」.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卷頭. ‘御製歷代君鑑序’條.
“朕惟天理之寓於天地者 至隱而難名 道之由於聖賢者 至顯而易見 … 然又以爲主善爲師 雖一善不可棄 乃采漢唐以來 諸君嘉言善行 并編輯之揭 曰善可爲法 其前後凡言行 有可以警省者 則附于末揭 曰惡可爲戒 通五十卷 名爲歷代君鑑 固將朝夕觀覽 以資勸懲 而亦以垂鑑於來世 且頒示廷臣 使因是而知勉輔之方 … 孟軻氏語景丑曰 我非堯舜之道 不敢以陳於王前 觀者其尙有 感發於斯哉 景泰四年八月日.”
- 15) 徐居正 著, 「四佳文集補遺一」.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肅宗 31(1705)]. 碑誌類. ‘崔文靖公碑銘’條.
“… 庚寅 撰歷代帝王后妃明鑑以進.”
- 16) 金宗直 著, 「佔畢齋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中宗 15(1520)], 校訂補板 後刷. 卷1. 序. ‘后妃明鑑序’條.
“… 恭惟我主上殿下 由文子孫 嗣大歷服 乃恢至治之規 乃奉東朝之旨 命經筵臣某等 哀集古今后妃之蹟 將以爲中壺之鑑誡 臣等 祇承睿意 博蒐傳記 上自唐虞 下迄高麗 得善可爲法者幾后 惡可爲戒者幾后 彙編爲幾卷 書成而進 命名明鑑 仍命臣宗直序之 ….”
- 17) 崔恒 著, 「太虛亭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肅宗 33(1707)]. 卷1. 序類. ‘后妃明鑑序’條.
“… 惟主上殿下 嗣大曆服 古訓是式 乃念內助之重 命臣某及高靈府院君臣申某 藝文應教臣金季昌 校理臣鄭徽等 採集古今后妃之行 以垂明鑑 臣等於是上自唐虞 下迄大明 撫其善可爲法 惡可爲戒者 彙而輯之 以進 ….”

印行에 들어가¹⁸⁾ 6개월 뒤인 동년(1500) 7월 28일에 印行을 마치고 撰進¹⁹⁾되기에 이르렀으나, 이후로 더 이상 본서의 간행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歷代明鑑』의 版本으로 판단할 때, 당시의 印行에 사용된 活字는 補字가 混入된 初鑄甲寅字이었으며, 또한 당시에 初刊된 이후 후대에 더 이상의 再刊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연산군이 廢主가 됨으로 말미암아 廢主時期的 撰集으로 忌避되었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3. 『歷代明鑑』의 收錄 範圍와 人物

『歷代明鑑』은 <君鑑>과 <后妃鑑> 및 <臣鑑> 등의 三鑑으로 구성된 도합 27권의 巨帙이다.

<君鑑>은 ‘善可爲法’ 5권과 ‘惡可爲戒’ 4권의 9권으로 편차되어 있고 <后妃鑑>은 ‘善可爲法’ 2권과 ‘惡可爲戒’ 1권의 3권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臣鑑>은 ‘善可爲法’ 11권과 ‘惡可爲戒’ 4권의 15권으로 편차되어 있다.

寶物本을 바탕으로 『歷代明鑑』의 卷次別 收錄 範圍와 人物들을 요약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1> 『歷代明鑑』의 卷次別 收錄 範圍와 人物 및 本文 傳來의 存否

卷次	『歷代明鑑』				寶物本 ²⁰⁾		大가本 ²¹⁾		備考
	鑑目	朝代	收錄 人物	合計	存	合	存	合	
卷頭	歷代明鑑序	-	-	[1]	○	[1]	○	[1]	
卷頭	歷代明鑑目錄	-	-	[1]	○	[1]	○	[1]	
卷01	君鑑 善可爲法	唐	帝堯	1	○	18	○	18	
		虞	帝舜	1					
		夏	禹	1					
		商	成湯 太甲 太戊 武丁	4					
		周	文王 武王 成王 康王 宣王	5					
		西漢	高帝 文帝 景帝 武帝 昭帝 宣帝	6					

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1月 21(丙子)日條.

“弘文館副提學洪洞等啓 印出明鑑 旣命弘文館員讎校 又命任士洪同監 ….”

1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7月 28(庚辰)日條.

“工曹判書成倪·知中樞府事洪貴達·兵曹參判權健 撰進歷代明鑑.”

20) 光山金氏 禮安派宗家 所藏本 『歷代明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歷代明鑑 卷1-3, 8-27 / 洪貴達 等撰. -- 初鑄甲寅字本. --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23卷6冊: 四周單邊, 半郭 25.0×17.0cm, 有界, 半葉 10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32.5×20.8cm.

卷頭序: 聖上嗣守丕基 … 正憲大夫知中樞府事兼知春秋館事知義禁府事臣洪貴達謹序.

卷末跋: 我殿下 … 正憲大夫工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事臣成倪謹跋.

21)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4).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光武 明帝 章帝	3	○	6	○	6
		南北朝	宋文帝 魏孝文帝 周武帝	3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憲宗 宣宗	3	○	4	○	4
		五代	周世宗	1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祖 太宗 眞宗 仁宗 神宗 孝宗 理宗	7	×	0	○	10
		金	世宗	1				
		元	世祖 仁宗	2				
卷05	君鑑 善可爲法	大明	太祖高皇帝 太宗文皇帝 仁宗昭皇帝 宣宗章皇帝	4	×	0	×	0
卷06	君鑑 惡可爲戒	夏	太康 履癸	2	×	0	×	0
		商	武乙 紂辛	2				
		周	厲王 幽王	2				
		秦	始皇 二世	2				
		西漢	成帝	1				
		東漢	安帝 桓帝 靈帝	3				
		西晉	惠帝	1				
		東晉	孝武帝	1				
卷07	君鑑 惡可爲戒	南北朝	宋少帝 孝武帝 齊鬱林王 明帝 梁武帝 陳後主 齊文宣帝 武成帝	8	×	0	×	0
卷08	君鑑 惡可爲戒	南北朝	齊後主 周宣帝	2	○	5	×	0
		隋	煬帝	1				
		唐	高宗 中宗	2				
卷09	君鑑 惡可爲戒	唐	代宗 懿宗 昭宗	3	○	8	×	0
		五代	唐莊宗	1				
		宋	徽宗	1				
		遼	天祚	1				
		金	海陵	1				
		元	順帝	1				
卷10	后妃鑑 善可爲法	周	太任 太姒 姜后	3	○	17	×	0
		列國	齊孟姬 宋伯姬 楚樊姬 楚貞姜 楚昭越姬	5				
		西漢	元帝馮昭儀 成帝班婕妤 平帝王皇后	3				
		東漢	明帝明德馬皇后 和帝和熹鄧皇后	2				
		晉	文帝文明王皇后	1				
		唐	太宗文德順聖皇后 太宗賢妃徐惠	2				
		五代	漢高祖皇后李氏	1				
卷11	后妃鑑 善可爲法	宋	昭憲杜太后 眞宗章穆郭皇后 眞宗章憲明肅劉皇后 仁宗慈聖光獻曹皇后 英宗宣仁聖烈高皇后 神宗欽聖憲肅向皇后 高宗憲聖慈烈吳皇后	7	○	12	×	0
		金	世宗昭德皇后 顯宗孝懿皇后	2				
		元	世祖昭睿順聖皇后	1				
		大明	太祖孝慈昭憲至仁文德承天順聖 馬皇后	2				
卷12	后妃鑑 惡可爲戒	夏	妹喜	1	○	15	×	0
		商	妲己	1				
		周	褒姒	1				
		列國	晉驪姬	1				
		西漢	高祖呂皇后 宣帝霍皇后	2				
		東漢	章帝竇皇后 和帝陰皇后 安帝安思閹皇后 桓帝懿獻梁皇后	4				
		西晉	惠帝賈皇后	1				

		隋	文帝文獻獨孤皇后	1				
		唐	高宗則天武皇后 玄宗楊貴妃	2				
		宋	光宗慈懿李皇后	1				
卷13	臣鑑 善可爲法	周	周公 太公	2	○	25	×	0
		列國	子產 晏平仲 叔向 公儀休	4				
		西漢	蕭何 曹參 王陵 陳平 周勃 周亞夫 張釋之 石奮 文翁 汲黯 霍光 金日磾 蘇武 張安世 黃霸 雋不疑 韓延壽 魏相 丙吉	19				
卷14	臣鑑 善可爲法	西漢 東漢	龔遂 召信臣 于定國 蓋寬饒 趙廣漢 鄧禹 馮異 馬援 卓茂 桓譚 郭伋 杜詩 張堪 魯恭 第五倫 龐參 秦彭 孟嘗 劉寵 仇覽 廉范 楊震(秉) 蘇章 虞詡 劉寬	5 21	○	26	×	0
卷15	臣鑑 善可爲法	三國	諸葛亮 蔣琬 毛玠 辛毗 周瑜 魯肅 張昭 陸遜	8	○	15	×	0
卷16	臣鑑 善可爲法	晉 南北朝	羊祜 杜預 祖逖 王導 陶侃 卞壺 謝安 江革 于謹 高允	7 3	○	11	×	0
		隋	趙綽	1				
		唐	房玄齡 杜如晦 魏徵 王珪 李綱 戴胄 馬周	7				
卷17	臣鑑 善可爲法	唐	褚遂良 狄仁傑 姚崇 宋璟 張九齡 韓休 郭子儀 顏真卿 顏杲卿 段秀實	10	○	10	×	0
卷18	臣鑑 善可爲法	唐	李晟 陸贄 裴度 張巡 李絳 韓愈	6	○	7	×	0
		五代	王彥章	1				
卷19	臣鑑 善可爲法	宋	趙普 曹彬 呂蒙正 李昉 張齊賢 李沆	12	○	12	×	0
			寇準 王旦 魯宗道 狄青 張詠 韓琦					
卷20	臣鑑 善可爲法	宋	范仲淹 富弼 文彥博 王曾 杜衍 歐陽修 趙抃 包拯 司馬光 呂公著 范純仁 唐介 蘇軾	13	○	13	×	0
卷21	臣鑑 善可爲法	宋	程頤 李綱 宗澤 張浚 趙鼎 韓世忠 岳飛	7	○	7	×	0
卷22	臣鑑 善可爲法	宋	洪皓 胡銓 楊存中 朱熹 虞允文 王十朋 周必大 真德秀 文天祥	9	○	9	×	0
卷23	臣鑑 善可爲法	遼 元	馬得臣 耶律楚材 劉秉忠 安童 張文謙 竇默 許衡 拜住	1 7	○	8	×	0
卷24	臣鑑 惡可爲戒	列國	費無極 太宰嚭	2	○	17	×	0
		秦	商鞅 李斯	2				
		西漢	田蚡 張湯 王溫舒 江充 上官桀 霍禹 王鳳 息夫躬 王莽	9				
		東漢	竇憲 梁冀 董卓 曹操	4				
卷25	臣鑑 惡可爲戒	晉 南北朝	王敦 蘇峻 桓溫 范曄 朱异 侯景 司馬申 孔範 和士開 馮子琮	3 7	○	11	×	0
		隋	王世充	1				
卷26	臣鑑 惡可爲戒	唐	許敬宗 來俊臣 周興 李義府 郭弘霸 李林甫 吉溫 楊國忠 安祿山 盧杞 元載 裴延齡 皇甫鎛 崔胤	14	○	14	×	0
卷27	臣鑑 惡可爲戒	宋	丁謂 王安石 蔡確 呂惠卿 章惇 蔡京 蔡卞 蔡攸 王黼 朱勛 黃潛善 苗傅 秦檜 韓侂胄 賈似道	15	○	15	×	0
卷末	歷代明鑑跋	-	-	[1]	○	[1]	×	
合計			321	321		285		38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歷代明鑑」의 卷頭에는 <歷代明鑑序>와 <歷代明鑑目錄>이 있고 卷末에는 <歷代明鑑跋>이 수록되어 있다.

「歷代明鑑」의 크게 <君鑑>과 <后妃鑑> 및 <臣鑑> 등 三鑑으로 編次되어 있으며, 各鑑의 아래에는 다시 ‘善可爲法’과 ‘惡可爲戒’의 2가지 法·戒로 구성되어 있다.

(1) <君鑑>의 ‘善可爲法’(권1-5)에는 唐(1)·虞(1)·夏(1)·商(4)·周(5)·西漢(6)·東漢(3)·南北朝(南宋1·北魏1·北周1)·唐(3)·五代(後周1)·宋(7)·金(1)·元(2)·大明(4) 등 16朝 42君主의 善迹이 수록되어 있으며, ‘惡可爲戒’(卷6-9)에는 夏(2)·商(2)·周(2)·秦(2)·西漢(1)·東漢(3)·西晉(1)·東晉(1)·南北朝(南宋2·南齊2·南梁1·南陳1·北齊3·北周1)·隋(1)·唐(5)·五代(後唐1)·宋(1)·遼(1)·金(1)·元(1) 등 21朝 35君主의 惡迹이 수록되어 있다.

(2) <后妃鑑>의 ‘善可爲法’(권10-11)에는 周(3)·列國(齊1·宋1·楚3)·西漢(3)·東漢(2)·晉(1)·唐(2)·五代(後漢1)·宋(7)·金(2)·元(1)·大明(2) 등 13朝 29后妃의 善迹이 수록되어 있으며, ‘惡可爲戒’(卷12)에는 夏(1)·商(1)·周(1)·列國(晉1)·西漢(2)·東漢(4)·西晉(1)·隋(1)·唐(2)·宋(1) 등의 도합 10朝 15后妃의 惡迹이 수록되어 있다.

(3) <臣鑑>의 ‘善可爲法’(권13-23)에는 周(2)·列國(鄭1·齊1·晉1·魯1)·西漢(24)·東漢(21)·三國(蜀2·魏2·吳4)·晉(西晉2·東晉5)·南北朝(南齊1·北周1·北魏1)·隋(1)·唐(23)·五代(後梁1)·宋(41)·遼(1)·元(7) 등 20朝 143臣下의 善迹이 수록되어 있으며, ‘惡可爲戒’(卷24-27)에는 列國(楚2)·秦(2)·西漢(9)·東漢(4)·晉(東晉3)·南北朝(南宋1·南梁1·後魏1·南陳2·北齊2)·隋(1)·唐(14)·宋(15) 등 13朝 57臣下의 惡迹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 「歷代明鑑」에는 唐·虞·夏·商·周·列國(齊·宋·楚·鄭·晉·魯)·漢(西漢·東漢)·三國(蜀·魏·吳)·晉(西晉·東晉)·南北朝(南宋·北魏·北周·南齊)·隋·唐·五代(後周·後梁·後漢)·宋·遼·金·元·大明 등 32朝 214人의 ‘善可爲法’과 夏·商·周·秦·列國(晉·楚)·漢(西漢·東漢)·晉(西晉·東晉)·南北朝(南宋·北魏·北周·南齊·南梁·南陳·北齊)·隋·唐·五代(後唐·後梁·後漢)·宋·遼·金·元·大明 등 27朝 107人의 ‘惡可爲戒’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寶物本은 전질 27권 중 23권은 殘存하나 권4의 宋(太祖·太宗·眞宗·仁宗·神宗·孝宗·理宗)·金(世宗)·元(世祖·仁宗) 등 3朝 10君主와 권5의 明(太祖高皇帝·太宗文皇帝·仁宗昭皇帝·宣宗章皇帝) 등 1朝 4君主의 도합 4朝 14君主의 ‘善可爲法’의 본문이 缺失되어 있으며, 권6의 夏(太康·履癸)·商(武乙·紂辛)·周(厲王·幽王)·秦(始皇·二世)·西漢(成帝)·東漢(安帝·桓帝·靈帝)·西晉(惠帝)·東晉(孝武帝) 등 8朝 14君主와 권7의 南北朝(宋少帝·孝武帝·齊鬱林王·明帝·梁武帝·陳後主·齊文宣帝·武成帝) 등 5朝 7君主의 도합 13朝 21君主의 ‘惡可爲戒’의 본문이 缺失되어 있다.

반면,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은 권1-4의 본문만 殘存되고 있으나, 그 중에는 寶物本에서 결실된 권4의 宋(太祖·太宗·眞宗·仁宗·神宗·孝宗·理宗)·金(世宗)·元(世祖·仁宗) 등 3朝

10君主의 ‘善可爲法’의 本文이 殘存되고 있어 그 價値가 결코 낮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

「歷代明鑑」은 연산군 6년(1500) 7월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이후 그의 12년(1506) 9월에 廢主가 됨으로 말미암아 廢主時期的 撰集으로 忌避된 까닭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刊行은 없었던 듯하며, 현재 전래되고 있는 版本도 寶物本과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에 불과하다.

4.1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の 內容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은 권5-27이 缺失인채 권1-4의 本文만 殘存되고 있으며, 권1-4에 수록되어 있는 <君鑑>의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表 2>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의 卷次別 收錄 人物과 內容 및 條目數

番號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 (卷1-4) ²²⁾									備考
	卷次	鑑法	朝代	收錄人物	條號	收錄 內容	條數	人數	條計	
001	卷頭	歷代明鑑序	-	-	[1]	聖上嗣守丕 … 洪貴達謹序	[1]		[1]	
002	卷頭	歷代明鑑目錄	-	-	[1]	歷代明鑑目 … 明鑑目錄終	[1]		[1]	
003	卷01	君鑑 善可爲法	唐	帝堯	01	帝堯陶唐氏 … 剪土階三等	3	18	57	
004	卷01	君鑑 善可爲法	唐	帝堯	02	勤於君道作 … 下得攻其過				
005	卷01	君鑑 善可爲法	唐	帝堯	03	存心於天下 … 百一十六歲				
006	卷01	君鑑 善可爲法	虞	帝舜	01	帝舜有虞氏 … 愛瞽亦允若	2			
007	卷01	君鑑 善可爲法	虞	帝舜	02	作布政之宮 … 年百有十歲				
008	卷01	君鑑 善可爲法	夏	禹	01	夏禹帝顓頊 … 準繩右規矩	3			
009	卷01	君鑑 善可爲法	夏	禹	02	既卽位以五 … 心是以痛之				
010	卷01	君鑑 善可爲法	夏	禹	03	時儀狄作酒 … 年享年百歲				
011	卷01	君鑑 善可爲法	商	成湯	01	成湯名履子姓	2			
012	卷01	君鑑 善可爲法	商	成湯	02	湯適野見野 … 年享年百歲				
013	卷01	君鑑 善可爲法	商	太甲	01	太甲成湯之 … 年號曰太宗	1			
014	卷01	君鑑 善可爲法	商	太戊	01	太戊雍己之 … 七十有五年	1			
015	卷01	君鑑 善可爲法	商	武丁	01	武丁帝小乙 … 五十有九年	1			

22)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歷代明鑑 卷1-4 / 洪貴達 等撰. -- 初鑄甲寅字本. --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4卷1冊: 四周單邊, 半郭 25.0×17.0cm, 有界, 半葉 10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33.5×21.8cm.

內賜記: 弘治十五(1502, 燕山君 8, 壬戌)年三月日/ 內賜承文院判校李泐/ 歷代明鑑一件/ 命除謝/ 恩/ 右承旨臣申 [手決] [手決]

卷頭序: 聖上嗣守丕基 … 正憲大夫知中樞府事兼知春秋館事知義禁府事臣洪貴達謹序.

印 文: ‘宣賜/之記’, ‘百拙’, ‘長溪人/叔浩用’, ‘黃養/善印’, ‘□□’, ‘□□□’ 등.

016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文王	01	文王名昌姬 … 暇食以待士	4		
017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文王	02	初紂用崇侯 … 以垂世立教			
018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文王	03	嘗鑿沼得朽 … 骨況生者乎			
019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文王	04	文王卑服卽 … 年九十有七			
020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武王	01	武王名發文 … 商政政由舊	2		
021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武王	02	建官惟賢位 … 年九十有三			
022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成王	01	成王名誦武 … 周公歸輔政	4		
023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成王	02	王撫萬邦巡 … 辟罔不承德			
024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成王	03	遷殷頑民於 … 勿宥惟厥中			
025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成王	04	臨終顧命群 … 四十有七年			
026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康王	01	康王名釗成 … 無遺鞠子羞	2		
027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康王	02	王恭敬神人 … 二十有六年			
028	卷01	君鑑	善可爲法	周	宣王	01	宣王名靜厲 … 四十有六年	1		
029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高帝	01	高帝名邦字 … 王卽皇帝位	5		
030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高帝	02	初入關中約 … 皆按堵如故			
031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高帝	03	帝置酒雒陽 … 也群臣說服			
032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高帝	04	初楚人季布 … 無效丁公也			
033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高帝	05	帝性明達好 … 享年五十三			
034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01	文帝名恒高祖中子	12		
035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02	詔曰法者治 … 諸相坐律令			
036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03	詔曰方春和 … 二匹絮三斤			
037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04	時有獻千里 … 四方母來獻			
038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05	詔曰朕聞之 … 匡朕之不逮			
039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06	上每朝郎從 … 未嘗不稱善			
040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07	詔曰夫農者 … 給宗廟粢盛			
041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08	詔曰古之治 … 此者勿聽治			
042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09	詔曰農天下 … 年田租之半			
043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10	初秦時祝官 … 不取其除之			
044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11	帝躬修玄默 … 刑錯之風焉			
045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文帝	12	宮室苑囿車 … 享年四十六			
046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景帝	01	景帝名啓文帝太子	3		
047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景帝	02	詔曰獄者人 … 厭者輒讞之			
048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景帝	03	詔曰雕文刻 … 享年四十八			
049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武帝	01	武帝名徹景帝中子	6		
050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武帝	02	上招選天下 … 大臣數屈焉			
051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武帝	03	以汲黯爲主 … 如黯近之矣			
052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武帝	04	詔曰蓋聞導 … 文學之士矣			
053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武帝	05	上耕于鉅定 … 可少病而已			
054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武帝	06	以田千秋爲 … 享年七十一			
055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昭帝	01	昭帝名弗陵武帝少子	2		
056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昭帝	02	鄂邑長公主 … 享年二十二			
057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宣帝	01	宣帝初名病 … 詢武帝曾孫	3		
058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宣帝	02	詔曰乃者地 … 食且勿算事			
059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宣帝	03	帝興于閭閻 … 享年四十二			
060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光武	01	光武皇帝諱 … 度仁明勇略	8	6	44
061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光武	02	初起太學稽 … 然文物可觀			
062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光武	03	日有食之帝 … 書不得言聖			
063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光武	04	詔曰郡國獻 … 候爲參封尉			
064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光武	05	陳留董宣爲 … 師莫不震慄			

065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光武	06	初作壽陵帝 … 與丘隴同體		
066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光武	07	帝大會群臣 … 爲太子太傅		
067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光武	08	京師體泉涌 … 年壽六十二		
068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明帝	01	明帝諱莊光武第四子	6	
069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明帝	02	帝幸辟雍初 … 于首陽之山		
070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明帝	03	帝大起北宮 … 遂應時澍雨		
071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明帝	04	日有食之既 … 德久而忘耳		
072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明帝	05	帝崇尚儒學 … 亦遣子入學		
073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明帝	06	帝遵奉建武 … 年壽四十八		
074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章帝	01	章帝諱烜顯宗第五子	3	
075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章帝	02	詔曰令云民 … 歲著以爲令		
076	卷02	君鑑	善可爲法	東漢	章帝	03	帝爲太子受 … 年壽三十一		
077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1	文帝諱義隆 … 武帝第三子	8	
078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2	遣散騎常侍 … 每歲三訊焉		
079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3	以江夏王義 … 由知衆事也		
080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4	詔魯郡修孔 … 役以供洒掃		
081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5	詔曰國以民 … 惰以行誅賞		
082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6	命衡山王義 … 節儉御物耳		
083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7	幸國子學發 … 賜帛各有差		
084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8	宋主聰明慕 … 年壽四十七		
085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01	孝文帝姓拓 … 帝弘之太子	11	
086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02	詔曰今京師 … 之使不暴露		
087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03	南巡至中山 … 老者還其親		
088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04	詔曰圖讖之 … 經典所載者		
089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05	柔然遣使者 … 使者而歸之		
090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06	詔罷起部無 … 者具以名聞		
091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07	詔罷尙方錦 … 戍士各有差		
092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08	引群臣訪政 … 父親行拜祭		
093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09	魏主欲變易 … 者加以優賞		
094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10	謂群臣曰國 … 卿等當知之		
095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魏孝文帝	11	魏主幼有至 … 享年三十二		
096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周武帝	01	武帝姓宇文 … 泰之第四子	8	
097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周武帝	02	將視學以太 … 拜禮成而出		
098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周武帝	03	詔諸有三年 … 勉以勵薄俗		
099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周武帝	04	皇太子獲白 … 在德不在瑞		
100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周武帝	05	葬文宣后於 … 內亦令依禮		
101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周武帝	06	禁佛道二教 … 禮者盡除之		
102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周武帝	07	鄭州獻九尾 … 錄乃命焚之		
103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周武帝	08	周主沈毅有年享三十六		
104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1	太宗諱世民 … 高祖第二子	42	4 65
105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2	詔曰宮女衆 … 戚任其適人		
106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3	上於弘文殿 … 至夜分乃罷		
107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4	上與群臣論 … 不敢縱欲也		
108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5	上令右僕射 … 德彞慙而退		
109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6	有上書請去 … 善朕不取也		
110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7	上神采英毅 … 失無惜盡言		
111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8	上謂侍臣曰 … 爲人所笑也		
112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9	上謂王圭曰 … 如始則善矣		

113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0	開中旱饑民 … 在官司收瘞	
114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1	突厥表請入 … 朕之不逮也	
115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2	畿內有蝗上 … 歲蝗不爲災	
116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3	上嘗曰朕每 … 不可暫無耳	
117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4	上曰此見群 … 縱鵲於野外	
118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5	天少雨中書 … 出三千餘人	
119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6	上曰爲朕養 … 令者以名聞	
120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7	上謂房玄齡 … 事乃關僕射	
121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8	上謂侍臣曰 … 等皆頓首謝	
122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19	上讀明堂鍼 … 毋得答囚背	
123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0	上嘗與群臣 … 時德彝已死	
124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1	有司上言皇 … 急不可失也	
125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2	林邑獻五色 … 使者而歸之	
126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3	上謂侍臣曰 … 是全活甚衆	
127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4	上謂執政曰 … 諫安能諫人	
128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5	康國求內附 … 卿輩諍爭也	
129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6	上謂侍臣曰 … 臣不相保乎	
130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7	上謂魏徵曰 … 小人競進矣	
131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8	工部尙書段 … 邪乃削綸階	
132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29	上欲分遣大 … 至如朕親睹	
133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0	上聘隋通事 … 責命停冊使	
134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1	治書侍御史 … 萬紀使還家	
135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2	著作佐郎鄧 … 何爲遂不許	
136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3	上問侍臣帝 … 四海之福也	
137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4	武德舊制釋 … 令學者習之	
138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5	上指殿屋謂 … 至此一懼也	
139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6	上嘗止樹下 … 士及叩頭謝	
140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7	上曰朕爲兆 … 樂在其中矣	
141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8	魏徵疾甚家 … 逝一鑑亡矣	
142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39	上曰人主唯 … 其所以難也	
143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40	上謂李世勣 … 后從諫則聖	
144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41	上謂長孫無 … 下左右皆悲	
145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42	上作帝範十 … 年壽五十二	
146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憲宗	01	憲宗諱純順宗長子	5
147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憲宗	02	荊南獻毛龜 … 獸皆毋得獻	
148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憲宗	03	李絳嘗面陳 … 言皆應如是	
149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憲宗	04	上嘗問貞元 … 怒而遽止也	
150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憲宗	05	上嘗與宰相 … 年壽四十三	
151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01	宣宗名忱憲之弟十三子	10
152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02	上敦睦兄弟 … 問憂形於色	
153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03	上嘗以太宗 … 常眞於案上	
154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04	萬壽公主上 … 如衣冠之族	
155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05	日食左補闕 … 亦不可御也	
156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06	嘗校獵渭上 … 勵衆始知之	
157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07	上欲幸華清 … 盥手而讀之	
158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08	教坊祝漢貞 … 宗法竟殺之	
159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09	上詔刺史毋 … 不汗濡衣也	
160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10	上性明察沈 … 三年壽五十	

161	卷03	君鑑	善可爲法	五代	周世宗	01	世宗諱榮本 … 祖遂以爲子	8		
162	卷03	君鑑	善可爲法	五代	周世宗	02	勅天下寺院 … 燈帶鉗之類			
163	卷03	君鑑	善可爲法	五代	周世宗	03	親錄囚於內 … 不親察獄訟			
164	卷03	君鑑	善可爲法	五代	周世宗	04	以縣官久不 … 亦非所惜也			
165	卷03	君鑑	善可爲法	五代	周世宗	05	上與將相食 … 差可自安耳			
166	卷03	君鑑	善可爲法	五代	周世宗	06	樞密使鄭仁 … 有往哭盡哀			
167	卷03	君鑑	善可爲法	五代	周世宗	07	唐陳覺使自 … 下有不服乎			
168	卷03	君鑑	善可爲法	五代	周世宗	08	淮南饑世宗 … 享年三十九			
169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祖	01	太祖諱光胤 … 吝千金購之	8	10	87
170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祖	02	初周世宗命 … 始貴文學矣			
171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祖	03	嘗讀尚書嘆 … 以戒官吏焉			
172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祖	04	大旱詔諸州 … 其租不俟報			
173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祖	05	帝躬履儉約 … 馬營中時耶			
174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祖	06	皇第三女永 … 之人何仰哉			
175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祖	07	帝坐正殿令 … 人皆見之矣			
176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祖	08	帝曰宰臣曰 … 年享年五十			
177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宗	01	太宗諱炅初 … 宣祖第三子	9		
178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宗	02	嘗畋近郊因 … 以鷹犬來獻			
179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宗	03	詔史館所脩 … 出於天性云			
180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宗	04	樞密使王顯 … 爲天下先也			
181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宗	05	嘗令左藏庫 … 無所增益焉			
182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宗	06	左正言謝泌 … 得魏鄭公也			
183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宗	07	帝遣使諸路 … 適何勞之有			
184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宗	08	帝孜孜爲治 … 耳可不勉乎			
185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太宗	09	帝手詔戒陳 … 年年五十九			
186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真宗	01	真宗諱恒太宗第三子	4		
187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真宗	02	帝謂輔臣曰 … 獸及諸祥瑞			
188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真宗	03	帝自即位每 … 後率以爲常			
189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真宗	04	秦國長公主 … 享年五十有五			
190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1	仁宗諱禎真宗第六子	16		
191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2	幸南御莊觀 … 貪可無恤哉			
192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3	知寧州職方 … 令邸吏還之			
193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4	帝謂輔臣曰 … 嫌其近名爾			
194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5	出內庫真珠 … 吾民之歛也			
195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6	詔曰自冬迄 … 令更爲此詔			
196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7	太傅致仕鄧 … 下過之遠矣			
197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8	御邇英閣謂 … 章對爲右圖			
198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9	眉州彭山縣 … 今毋得以聞			
199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10	汝州部署楊 … 在京一廟令			
200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11	內出欵器一 … 滿以事陛下			
201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12	十二月己丑 … 是夕乃得雪			
202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13	諫官韓絳因 … 慮而後行之			
203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14	邇英閣講書 … 惜夏禹之拜			
204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15	京師大疫令 … 哉立命碎之			
205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16	中書樞密院 … 享年五十四			
206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神宗	01	神宗諱項英宗長子	5		
207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神宗	02	帝出諸州貢 … 今其悉罷之			
208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神宗	03	帝以經冬無 … 以答天變也			
209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神宗	04	大旱帝避殿 … 太平可俟也			

210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神宗	05	帝諭執政以	… 年年三十八	
211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01	孝宗諱昚太	… 孫子稱之子	11
212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02	帝手書召張	… 當不忘公言	
213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03	詔云比日飛	… 斂以稱德意	
214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04	帝謂侍讀官	… 失亦當言之	
215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05	新除吏部尙	… 嘗不鄙之也	
216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06	鎮江軍帥戚	… 戾必罰無赦	
217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07	帝謂輔臣曰	… 曰卿言誠然	
218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08	立皇子恭王	… 導不得其人	
219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09	帝又嘗諭輔	… 以德宗爲戒	
220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10	帝謂執政曰	… 當始於宮禁	
221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孝宗	11	太上崩帝號	… 享年六十八	
222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理宗	01	理宗諱昀宗	… 太祖十世孫	7
223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理宗	02	程秘進讀三	… 院明諭朕意	
224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理宗	03	二月朔雨雪	… 茲不忘艱難	
225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理宗	04	喬行簡進讀	… 密豈容不守	
226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理宗	05	侍講范楷進	… 不可不戒也	
227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理宗	06	追封周敦頤	… 洞學規賜焉	
228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理宗	07	帝諭輔臣曰	… 享年六十一	
229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01	世宗諱雍姓	… 宗訛里朶子	13
230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02	金主謂宰執	… 亟條具以聞	
231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03	詔減御膳及	… 耳枉費安用	
232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04	詔第職官廉	… 以臨民職任	
233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05	金主謂宰臣	… 世以爲何如	
234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06	嘗謂秘書監	… 飾勿用黃金	
235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07	金主與宣徽	… 人臣之道也	
236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08	又曰朕已行	… 毋拒而不從	
237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09	金主幸東宮	… 惟以誠實耳	
238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10	尙書省奏鄧	… 親官與養濟	
239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11	金主謂宰臣	… 施及子孫矣	
240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12	尙書省擬同	… 一境何賴焉	
241	卷04	君鑑	善可爲法	金	世宗	13	又曰朕雖年	… 壽六十有七	
242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世祖	01	世祖諱忽必	… 拖雷第四子	7
243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世祖	02	初帝聞竇默	… 日不能行耶	
244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世祖	03	詔十路宣撫	… 量輕重議罰	
245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世祖	04	詔湖南行省	… 之官給其需	
246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世祖	05	或告漢人毆	… 曰用旌卿直	
247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世祖	06	帝以不忽木	… 此以見朕也	
248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世祖	07	尙書省臣言	… 年享年八十	
249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仁宗	01	仁宗諱愛育	… 子武宗之弟	7
250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仁宗	02	詹事院臣啓	… 之戒諭如初	
251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仁宗	03	帝諭左右曰	… 家所宜寶也	
252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仁宗	04	左丞相合散	… 天變可弭也	
253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仁宗	05	帝嘗出見衛	… 命賜之錢帛	
254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仁宗	06	大司農買住	… 帙散之民間	
255	卷04	君鑑	善可爲法	元	仁宗	07	帝御嘉禧殿	… 享年三十六	

合計

253 38 253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의 卷頭에는 洪貴達의 <歷代明鑑序>와 <歷代明鑑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唐(1)·虞(1)·夏(1)·商(4)·周(5)·西漢(6)·東漢(3)·南北朝(南宋1·北魏1·北周1)·唐(3)·五代(後周1)·宋(7)·金(1)·元(2) 등 15朝 38君主의 ‘善可爲法’에 해당하는 <君鑑>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권1에는 唐朝의 帝堯(3), 虞朝의 帝舜(2), 夏朝의 禹(3), 商朝의 成湯(2)·太甲(1)·太戊(1)·武丁(1), 周朝의 文王(4)·武王(2)·成王(4)·康王(2)·宣王(1), 西漢朝의 高帝(5)·文帝(12)·景帝(3)·武帝(6)·昭帝(2)·宣帝(3) 등 6朝 18君主 57條目的 善迹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2에는 東漢朝의 光武(8)·明帝(6)·章帝(3), 南北朝의 宋文帝(8)·魏孝文帝(11)·周武帝(8) 등 4朝 6君主 44條目的 善迹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3에는 唐朝의 太宗(42)·憲宗(5)·宣宗(10), 五代的 周世宗(8) 등 2朝 4君主 65條目的 善迹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4에는 宋朝의 太祖(8)·太宗(9)·眞宗(4)·仁宗(16)·神宗(5)·孝宗(11)·理宗(7), 金朝의 世宗(13), 元朝의 世祖(7)·仁宗(7) 등 3朝 10君主 87條目的 善迹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에는 도합 15朝 38君主 253條目的 ‘善可爲法’의 善迹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은 비록 권1-4의 本文만이 殘存되고 있으나, 그 중에는 寶物本에서 결실된 권4의 宋(太祖·太宗·眞宗·仁宗·神宗·孝宗·理宗)·金(世宗)·元(世祖·仁宗) 등 3朝 10君主 87條目에 해당하는 ‘善可爲法’의 本文이 殘存되고 있어, 그 價値가 결코 낮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의 特徵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의 卷頭에는 “弘治十五年三月日/ 內賜承文院判校李滋/ 歷代明鑑一件/ 命除謝/ 恩/ 右承旨臣申[某] [手決] [手決]”의 內賜記가 墨書되어 있을 뿐 아니라 “宣賜之記”의 內賜印이 날인²³⁾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은 연산군 6년(1500)에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2년 뒤인 연산군 8년(1502, 弘治 15) 3월에 당시 承文院判校인 歸來亭 李滋(1440-1516)에게 內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王命을 받은 右承旨 申[某]는 二樂亭 申用漑(1463-1519)임을 알 수 있다.

23)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4).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4.2.1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の 內賜 受恩臣僚 李滋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의 內賜를 受恩한 新료인 歸來亭 李滋(1440-1516)의 本관은 固城이고 자는 深源이며 호는 洛浦 · 歸來亭 등이다.²⁴⁾ 固城李氏 始祖인 李璜(?-?)의 13세손으로 高祖는 文貞公 李岳(1297-1364)이고 曾祖는 文敬公 李岡(1333-1368)이며, 祖父는 襄憲公 李原(1368-1430)이고 父親은 참판에 추증된 李增(1525-1600)²⁵⁾이다.²⁶⁾

歸來亭은 부친과 慶州 李禧(?-?)의 딸인 모친과의 슬하에서 次子로 출생하여 그의 형제는 李平(1440-1491) · 李洺(?-?) · 李沼(?-?) · 李清(?-?) 등이며, 자신은 兪知中樞府事 鎮川 宋衣(?-?)의 딸과 혼인하여 2남 3녀를 두어 男은 李孝側(?-?)과 李恩重(?-?)이고 女婿는 安愔(?-?)와 卞亨孫(?-?) 및 成希顏(1461-1513) 등이다.²⁷⁾

歸來亭은 세종 23년(1441)에 출생하여 세조 10년(1464)에 進士試에 합격하고 성종 11년(1480)에 式年文科 丙科로 급제하여 典籍에 제수된 이래로 軍威縣監을 거쳐 성종 22년(1491)부터 司圃署司圃 · 世子侍講院文學 · 司諫院獻納²⁸⁾ · 司憲府持平²⁹⁾ · 工曹正郎 · 淸道郡守 등을 역임하면서, 庇安守 李諭(?-?)家의 賜宴을 취소할 것을 청하고³⁰⁾ 執義 崔潘(?-?)의 推鞠을 상소³¹⁾하였으며 病中인 卞宗仁(1433-1500)의 遞差를 논계³²⁾하였다. 또한 成侃(1439-1504)의 大司憲 발탁을 論啓하기

- 24) 固城李氏族譜所 編, 「固城李氏族譜」. [刊行地不明]: [固城李氏族譜所], [高宗 11(1874)]. 卷4. 張1. ‘滋’條.
“滋: 字深源 號洛浦 嘉善大夫開城留守 二十五進士 四十登第 癸酉致仕 退去安東 作歸來亭 取陶靖節歸去來辭之意 正統辛酉生 正德丙子四月卒 墓安東南先江亭順天洞坤坐 黃蕃翁孝獻撰神道碑文 配鎮川宋氏 父兪知衣 祖郡事翼 外祖府尹全義李士寬 忌十月二日 墓會林卯坐.”
- 25) 固城李氏族譜所 編, 「固城李氏族譜」. 卷3. 張1. ‘增’條.
“增: 字子謙 永樂己亥生 癸酉進士靈山縣監 贈吏曹參判 成化庚子九月卒 壽六十二 … 公宰鎮海 · 寧山二縣 淸慎慈惠 有去後思 自靈山謝 忽歸安東因居焉 與鄉之耆德十二人結友鄉稷 徐四佳作長歌以美之 姜相國渾撰碑 配慶州李氏 永樂壬寅生 正德己巳二月卒 壽八十八 ….”
- 26) 固城 李滋의 家系는 “李璜(固城始祖) - 田枝(02) - 國軒(03) - 永年(04) - 麟沖(05) - 璿(06) - 尊庇(07) - 瑀(08) - 晷(09) - 岡(10) - 原(11) - 增(12) - 滋(13) - 孝側(14) - 福貞(15)/命貞 - 堯臣(16) - 夢台(17) - 誠發(18) - 玎(19) - 汝泌(20) - 枝馥(21) - 萬成(22) - 泰復(23) - 培根(24) - 箕煥(25) …”으로 이어지고 있다. <固城李氏族譜所 編, 「固城李氏族譜」. 參看.>
- 27) 固城李氏族譜所 編, 「固城李氏族譜」. 卷4. 張1. ‘滋’條 參看.
- 2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4年 1月 18(甲申)日條.
“以金律爲朝散司諫院司諫 李滋通訓司諫院獻納.”
- 2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4年 閏5月 8(辛丑)日條.
“以尹孝孫爲資憲刑曹判書 … 李滋通訓司憲府持平 南慄通德持平 ….”
- 3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4年 閏5月 12(乙巳)日條.
“司憲府持平李滋來啓曰 聞試藝居首庇安守 諭家賜宴 此雖續典所載 今方禁酒 請停之 ….”
- 3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4年 閏5月 15(戊申)日條.
“司憲府持平李滋來啓曰 聞執義崔潘前爲金堤郡守遞任時 先送家具馱物 至烏德院等處 有品官 以院主爲證 搜索馱物 已行移問之 而時未回報 臣等不可與潘爲同僚 請改差 且遣朝官推鞠 傳曰 可.”
- 3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4年 閏5月 24(丁巳)日條.
“司憲府持平李滋來啓曰 永安北道節度使卞宗仁 今因其妻上言遞差 若親病與身病則已矣 以妻子之病而遞之, 恐未便 況本道有邊警乎 ….”

도 하였으며 蔚山兵營의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건의³³⁾하기도 하였다.³⁴⁾

연산군 5년(1499)에 이르러 外任에서 돌아와 司宰監僉正·奉常寺副正·司憲府執義·禮賓寺正·承文院判校 등을 역임³⁵⁾하고 연산군 6년(1500)에는 司憲府執義³⁶⁾로서 경연에서 『綱目』의 강독을 권유하였으며³⁷⁾ 大司諫과 습시하여 상소³⁸⁾하기도 하였다. 연산군 9년(1503)에는 通政大夫로 승차하여 尙州牧使를 역임하고 연산군 10년(1504)에는 甲子士禍에 金宏弼(1454-1504)의 일당으로 몰려 관직이 삭탈되었으며, 慶尙道 寧海로 竄配³⁹⁾되었다.

중종 원년(1506)의 中宗反正 뒤에 다시 기용되어 僉知中樞府事·兵曹參知·兵曹參議 등을 역임하고 중종 2년(1507)에는 嘉善大夫로 加資되어 忠淸道兵馬節度使에 제수되었으나 부친을 봉양을 위하여 사직을 청하자 慶尙左道水軍節度使에 제수되었다. 중종 4년(1509)에 부친상을 마친 뒤에 다시 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고 중종 6년(1511)에는 漢城府左尹을 역임⁴⁰⁾하면서 臺諫의 탄핵을 받기도 하고⁴¹⁾ 望闕禮와 會禮宴에 대하여 의론⁴²⁾하기도 하였다. 중종 7년(1512)에는 臧吏의 자식들의 과거응시의 여부⁴³⁾와 倭人接待에 관하여 의논하고 건의⁴⁴⁾한 뒤 開城府留守를 역임⁴⁵⁾하기도

- 3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4年 10月 22(癸未)日條.
“議慶尙道 蔚山兵營移置便否 尹弼商·李鐵堅·韓致亨·鄭佖·柳輕·申浚·成倪·柳洵·金永儒·尹殷老·李季男·李滋·韓忠仁議 蔚山兵營 城郭公廩軍營 竝皆宏壯 有嚴瞻視 雖倭人見之 萬無輕我之弊 今無一弊而輕易縮排於內 非徒坐損國威 適足啓戎心矣 大抵遷邑重事 不可輕舉 況巨鎮乎 臣等意以爲 備禦之術 但在於將得其人 不在於營之傍海遠近 仍舊爲便 ….”
- 34) [編著者不明], 『國朝人物考』, [筆寫地不明]: [筆寫處不明], [筆寫年不明]. 卷43. 燕山時罹禍人. ‘李滋碑銘(黃孝獻撰)’條 參看.
- 35) [編著者不明], 『國朝人物考』, 卷43. 燕山時罹禍人. ‘李滋碑銘(黃孝獻撰)’條 參看.
- 3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5月 10(癸亥)日條.
“以許琛爲吏曹參判 … 李滋司憲府執義 … 閔愷著作 朴元宗兼副摠管.”
- 3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5月 19(壬申)日條.
“彗星見 太白晝見 御經筵 執義李滋曰 殿下方講綱目 然經學亦不可不講 請竝講經學 且晝·夕講及夜對 亦不可不御也 ….”
- 3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8月 1(癸未)日條.
“大司諫李禮堅·執義李滋等合同上疏 傳曰 徐當發落.”
- 39) [編著者不明], 『國朝人物考』, 卷43. 燕山時罹禍人. ‘李滋碑銘(黃孝獻撰)’條 參看.
- 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6年 8月 4(辛巳)日條.
“以申用漑爲禮曹判書 南袞爲兵曹參判 李滋爲漢城府左尹 ….”
- 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6年 8月 6(癸未)日條.
“臺諫啓前事 又啓 左尹李滋 性本懶慢 且不明 不合治訟 請遞 皆不允.”
- 4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6年 12月 30(丙午)日條.
“… 且五禮儀內 攝行無齋儀 先王朝 亦不以攝行齋戒 而廢望闕禮會禮宴等事 臣意依祖朝例行之 無妨柳順汀·鄭眉壽·閔孝曾·宋軼·李蓀·金應箕·張順孫·任由謙·李季男·成世純·李自健·安潤孫·申用漑·金對·李滋·尹喜孫·朴說·崔漢洪 亦請依祖朝舊例 ….”
- 4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7年 1月 2(戊申)日條.
“… 柳順汀議 臧吏子孫 不敍顯職 律無其文 獨於大典 臧吏子及孫 勿授議政府等職 云云 此重臧吏之法也 然其子若孫爲人後者 似不在此限 何耶 爲之後者爲之子 爲生父降服 則不可以所生子孫論斷 … 安潤孫·朴說·崔漢洪·安潤德·李滋·尹喜孫等議 與順汀議略同 ….”
- 4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7年 1月 15(辛酉)日條.

하였다. 증중 8년(1513)에 이르러 同知中樞府事·開城府留守로 致仕한⁴⁶⁾ 뒤에 慶尙道 安東으로 귀향하여 歸來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곳에서 風流生活을 즐기며 여생을 보내다가 증중 11년(1516)에 享年 76세로 卒去하였다. 詩와 文章에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⁴⁷⁾

4.2.2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の 內賜 奉命承旨 申用漑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의 內賜를 奉命한 우승지 申[某]는 연산군 8년(1502) 정월에 右承旨에 제수되어⁴⁸⁾ 동년(1502) 6월에 左承旨로 陞差한⁴⁹⁾ 二樂亭 申用漑(1463-1519)가 아닌 가 한다.

二樂亭은 高靈申氏 始祖인 申成用(?-?)의 12세손으로 자는 漑之이고 호는 松溪·二樂亭·睡翁 등이며 시호는 文景이다.⁵⁰⁾ 고조는 贊成에 추증된 申包翹(1361-1432)이고 증조부는 領議政에 추증된 申檣(1382-1433)이며, 조부는 文忠公 申叔舟(1417-1475)이고 부친은 領議政에 추증된 申灑(1438-1467)이다.

二樂亭은 세조 9년(1463)에 출생하여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성종 14년(1483)에 司馬試에 及第하고 성종 19년(1488)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承文院正字로 등용⁵¹⁾된 뒤 成宗朝·燕山君朝·中宗朝를 거치면서 弘文館直提學⁵²⁾·都承旨⁵³⁾·忠淸道水軍節

“漢城府判尹安潤德·左尹李滋·右尹尹喜孫啓曰 昨夕聞典醫監洞 有一女人 授其病母于作人 打傷頭腦 棄置水口門外 其母後四日 復更來臥于鍾樓下 臣等聞之 不勝驚駭 卽令其坊管領 捉致其女 …”

4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7年 3月 13(戊午)日條.

“以姜渾爲崇祿慶尙道觀察使 … 李滋爲開城府留守 孔瑞麟爲弘文館修撰 李孝彥爲副修撰 金安世爲博士.”

4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8年 3月 8(丁丑)日條.

“開城府留守李滋 致仕還鄉.”

47) [編著者不明], 『國朝人物考』, 卷43. 燕山時罹禍人. ‘李滋碑銘(黃孝獻撰)’條 參看.

4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8年 1月 5(戊寅)日條.

“以李諱爲資憲漢城府判尹 宋軼戶曹參判 … 申用漑右承旨 張順孫左副承旨 …”

4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8年 6月 4(甲辰)日條.

“以金尙爲刑曹參判 許琛京畿觀察使 … 申用漑左承旨 張順孫右承旨 李站左副承旨 …”

50) 高靈申氏인터니族譜編纂委員會 編, 『高靈申氏大同譜』, 卷5. pp.4-8. ‘用漑’條.

“用漑: 字漑之 號二樂亭又號松溪 文左議政 世祖九年一四六三癸未十月十六日生 成宗十四年一四八三年癸卯 司馬兩試入格 成宗十九年一四八八年甲戌文丙科及第 歷湖堂陞大提學左議政 諡號文景 有遺像 二樂亭集 撰續東文選續三綱行實圖 錄勳靖國原從功臣一等 光國原從功臣 中宗二十三年一吾一毳年己卯十月三日卒 壽五十七 墓南楊州市金谷洞山一三五-二二乾坐原 … 配貞敬夫人密陽朴氏 父左贊成健 祖左參贊仲孫 曾祖正字切問 外祖府使全州崔昫 世祖九年一四六三七月八日生 成宗二十四年一四九三癸丑四月二十五日卒 壽三十一歲 生二子二女 再配生六子四女.” <<http://www.yesjokbo.co.kr/jokboroot/default.asp> 檢索>

5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9年 10月 22(壬子)日條.

“… 弘文館直提學申從漢 典翰李昌臣 … 修撰朴承燾·黃啓沃 博士朴增榮 著作成希顏 正字申用漑議 …”

5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8月 21(癸卯)日條.

“以金諱爲戶曹參判 鄭光世刑曹參判 … 申用漑弘文館直提學 李懿孫司諫院司諫 成世純典翰 金勸應教 …”

5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8年 8月 10(己酉)日條.

“以柳洵爲議政府右贊成 盧公弼戶曹判書 李自健忠淸道觀察使 … 申用漑承政院都承旨 張順孫左承旨 …”

度使⁵⁴·刑曹參判⁵⁵·弘文館大提學⁵⁶·兼弘文館藝文館大提學⁵⁷·奏請上使^{58/59}·禮曹判書⁶⁰·吏曹判書⁶¹·大司憲⁶²·兵曹判書⁶³·右議政⁶⁴·左議政⁶⁵ 등의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중종 14년(1519)에 享年 57세로 卒去⁶⁶하였다.

二樂亭은 기품이 높고 총명하여 文名을 떨치고 활쏘기 등 武藝에도 뛰어나 文武를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인품 또한 깨끗하여 犯하지 못할 점이 있어, 당시 人士들의 推仰을 받은 인물이었다.

4.2.3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の 各種 印文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의 卷頭에는 內賜本임을 상징하는 ‘宣賜之記’의 內賜印뿐 아니라 ‘百拙’·‘長溪人叔浩用’·‘黃養善印’·‘□□’·‘□□□’ 등 5類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宣賜之記’의 印文은 왕명으로 서적을 頒賜할 때 표지 뒷면에 內賜記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인장으로 사용된 御寶의 印文이다. 일반적으로 內賜記에는 국왕이 頒賜한 서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누구에게 무슨 서적 몇 권을 頒賜하는지 등의 내용을 기록하며, 內賜記와 더불어 卷頭에 ‘宣賜之記’의 御寶를 날인함으로써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內賜印이다.

- 5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8年 10月 21(庚申)日條.
“以張順孫爲承政院都承旨 李站左承旨 … 申用漑忠淸道水軍節度使 金守貞全羅右道水軍節度使.”
- 5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1年 10月 3(戊申)日條.
“以盧公弼爲判敦寧府事 … 申用漑爲刑曹參判 李惟淸爲司憲府執義 李世仁爲司諫院司諫 ….”
- 5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年 2月 4(戊寅)日條.
“傳于吏曹曰 其以參判申用漑超資 授弘文館大提學.”
- 5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年 2月 4(戊寅)日條.
“以金應箕爲議政府右參贊 申用漑爲兼弘文館藝文館大提學 安潤德爲刑曹參判 閔祥安爲司憲府大司憲 ….”
- 5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年 4月 11(甲申)日條.
“以大提學申用漑爲奏請上使 以同知事安潤孫爲副使 以弘文應教李荇 爲書狀官 以花川君沈貞爲謝恩使 ….”
- 5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年 9月 7(丁未)日條.
“遣左贊成成希顏·工曹判書申用漑 如京師 請承襲.”
- 6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3年 7月 4(庚子)日條.
“以盧公弼爲交城君 宋軼爲左贊成 … 申用漑爲禮曹判書 權鈞爲刑曹判書 李自健爲戶曹參判 ….”
- 6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4年 1月 18(辛亥)日條.
“以李誥爲議政府右參贊 申用漑爲吏曹判書 金應箕爲刑曹判書 安瑒爲司憲府大司憲 尹耕爲司諫院司諫 ….”
- 6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8年 5月 21(戊子)日條.
“以申用漑爲大司憲 尹金孫爲坡城君 金協爲執義 權機爲持平 金正國爲獻納.”
- 6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8年 6月 27(甲子)日條.
“以金應箕爲禮曹判書 申用漑爲兵曹判書 柳聃年爲兵曹參判 沈貞爲刑曹參判 柳湄爲工曹參判 ….”
- 6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10年 8月 16(庚午)日條.
“傳曰 政府堂上·兵曹判書·大司憲·大司諫·並招可也 上御宣政殿 又引見左議政鄭光弼 右議政申用漑 ….”
- 6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月 5(乙巳)日條.
“以金應箕爲領中樞府事 申用漑爲議政府左議政 金錫哲爲兵曹參判 慶世昌爲漢城府左尹 ….”
- 6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年 10月 3(癸亥)日條.
“左議政申用漑卒 上聞訃驚慟 命都承旨別致賻贈 命政府·禮曹議舉哀.”

그 밖의 ‘百拙’·‘長溪人叔浩用’·‘黃養善印’·‘□□’·‘□□□’ 등 5類의 印文 중에서 ‘黃養善印’의 印文은 한 때 本書를 소장하였던 黃養善(1829-1898)⁶⁷⁾의 所藏印이다. ‘長溪人叔浩用’의 印文의 경우 ‘長溪’는 長水의 古稱으로 黃養善의 本貫을 지칭하는 것이며 ‘叔浩’는 黃養善의 字이다. 또한 ‘百拙’의 印文은 黃養善의 號인 듯하다.

黃養善의 본관은 長水이고 字는 叔浩이며, 순조 29년(기축, 1829) 2월에 출생하여 고종 광무 2년(무술, 1898) 정월에 향년 70세로 卒去한 인물이다. 또한 溪堂 柳疇睦(1813-1872)의 문하에 노닐면서 몸가짐을 삼갔을 뿐 아니라 行實이 篤實한 인물⁶⁸⁾이기도 하였다. 또한 黃養善의 次子인 黃在昊(1865-1926)는 孝誠이 지극하였던 인물로 그의 略傳이 四未軒 張福樞(1815-1900)의 『四未軒文集』에 수록⁶⁹⁾되어 있다.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이 慶北 尙州市 牟東面 新川里에 거주하는 黃義高⁷⁰⁾의 寄贈本⁷¹⁾임을 감안한다면, 本書는 기증자 黃義高(1930-?)의 曾祖인 黃養善의 舊藏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은 未判讀의 印文으로 어느 人士와 관련된 印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黃養善보다 먼저 本書를 소장하였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을 듯하며, 아마도 歸來亭 李滋의 碑銘⁷²⁾을 찬술한 黃孝獻(1491-1532)⁷³⁾과 관련된 印文이 아닌가 한다.

67) 長水 黃義高의 家系는 “黃瓊(長水始祖) … 石富(中始祖) - 均庇(02) - 君瑞(03) - 喜(04) - 保身(05) - 敬兄(06) - 遂(07) - 鐵星(08) - 確(09) - 玄慶(10) - 緬(11) - 載厚(12) - 鎮岳(13) - 翼胄(14) - 亨榦(15) - 碩休(16) - 濟熙(17) - 敬老(18) - 養善(19) - 在恒(20) - 繪周(21) - 義高(22) - 琪淵(23) - 寅守(24) …”으로 이어지고 있다. <長水黃氏大宗會 編, 『長水黃氏世譜』, 參看.>

68) 長水黃氏大宗會 編, 『長水黃氏世譜』, 大田: 回想社, 2000. 卷8. p.2. ‘養善’條.
“養善: 字叔浩 純祖己丑二月八日生 戊戌一月十九日卒 遊柳溪堂門 謹飭篤行 墓壽峯里風乎亭後申坐 有碣 興陽李時佐撰 配治城宋氏 父生員鴻翼 祖生員寅和 曾祖能欽 儂溪希奎后 外祖豐壤趙述舜 甲申十一月八日生 乙酉十月四日卒 墓黃澗柯木亭良坐 次子在昊立石.”

69) 張福樞 著, 『四未軒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武 10(1906)]. 卷6. 雜著. 撫幽錄. ‘黃君在昊’條.
“黃君在昊 卽商山之新川居士叔浩之第二子也 在昊孝事無違忤 及其親以疾臥三載 在昊與丘嫂 凡適口適體之物 與夫利病之藥餌 補元之肉汁 靡日或懈 竟使稍饒之 家業剝落無餘 宗族稱之以孝 已成口碑 日家屢採於家近野山 取松根一負 曝之爲薪 其丘嫂將取而爨之 有一物着在松根 大如指 長可三寸 熟視之 乃山蓼也 告于其叔 煎獻卽效 噫 此非野山之可產也 亦非松根之可着也 彼雪筍水鯉 求有於有處 而得之猶爲孝 況此物 本非此山之有 而不求自至 天實爲之 豈非誠心所感耶.”

70) 長水黃氏大宗會 編, 『長水黃氏世譜』, 卷8. p.204. ‘義高’條.
“義高: 字康壽 一九三十年庚午九月二日生 室慶州孫順遠 父炳星 祖極秀 曾祖永禧 野村萬雄后 外祖仁川蔡鴻儀 乙亥一月二日生.”

71)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의 整理記錄에는 “受贈番號: 2793. 受贈日字: 1772. 03. 01. 寄贈者: 尙州 牟東 黃義高”로 기록되어 있다.

72) [編著者不明], 『國朝人物考』, 卷43. 燕山時罹禍人. ‘李滋碑銘(黃孝獻撰)’條 參看.

73) 黃孝獻(1491-1532): 본관은 長水이고 字는 叔貢이며, 號는 蓄翁·玄翁·慎齋 등이다. 玄祖는 영의정 黃喜이고 曾祖는 黃保身이며, 祖父는 黃從兄이고 父親은 府使 黃灌이며, 母親은 執義 姜眉壽의 딸이다. 중종 9년(1514)에 진사로서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1515) 弘文館正字가 되어 賜暇讀書를 하고 弘文館直提學·同副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중종 21년(1526)에 江原道觀察使를 거쳐 중종 22년(1527)에 大司成과 黃海道觀察使 등을 역임하고 중종 23년(1528)에 吏曹參議를 거쳐 吏曹參判에 올랐다. 중종 25년(1530)에 李荇 등과 함께

따라서 원래 歸來亭 李滄에게 內賜되었던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이 어떤 연유로 長水 黃養善의 家門으로 流入되었는지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4.2.4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の 印出狀態 및 校正

『歷代明鑑』의 撰集과 刊行이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진행된 탓에서인지,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 권1-4의 몇몇 곳에는 誤字를 교정하여 補貼하거나 脫字를 삽입한 경우도 있다.

<表 3>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의 校正 內容

番號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⁷⁴⁾					寶物本 ⁷⁵⁾		備考
	卷次	鑑法	朝代	人物	面·行	內容	內容	
01	卷頭	歷代明鑑序	-	-	02 B10	人心操舍之無常	人心慘舍之無常	誤字校正
02	卷01	君鑑 善可爲法	西漢	武帝	14 A04	爲人性据少禮面折	爲人性倨少體面折	誤字校正
03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8 A04	汝曹少長豐佚	汝曹少長農佚	誤字校正
04	卷02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宋文帝	08 B04	士敦操尙鄉恥輕薄	士敦操尙卿恥輕薄	誤字校正
05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8 A10	昔關龍逢忠諫而死	昔關龍逢忠諫而死	誤字校正
06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太宗	08 B02	念關龍逢之死	念關龍逢之死	誤字校正
07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13 A07	至治未嘗不任忠賢	治未嘗不任忠賢	脫字補入
08	卷03	君鑑 善可爲法	唐	宣宗	15 A07	上手筆除君奭宰相	上手筆除君奭	誤字校正
09	卷04	君鑑 善可爲法	宋	仁宗	08 B02	五種弗入農失作業	-	誤字校正

誤字의 경우에는 誤植字를 刀切하고 正字를 별도로 印出하여 補貼으로 補입함으로써 誤字를 校正하고 있으며, 脫字의 경우에는 上邊欄에 筆寫를 통하여 脫字를 補入한 경우이다.

4.2.5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の 狀態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은 권1-4의 1책으로 前後의 表紙는 改裝되어 있으며, 부분적인 磨滅과 蟲害가 있고 전체적으로 汚染된 부분이 많은 편이다. 또한 卷頭와 卷末의 數張은 훼손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본문의 內容을 판독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紙類文化財 保存處理 專門家나 補貼匠에 의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시급한 실정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편찬에 참여한 뒤 中宗 27년(1532)에 安東府使로 外補되었다가 갑자기 卒去하였다. 사람이 됨이 談論을 좋아하고 風儀가 아름다워 貴公자 같았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문장에 뛰어났으나 갑작스러운 卒去로 많은 사람이 애석히 여겼다고 한다. 尙州의 玉洞書院에 祭享되었다.

74)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4).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75)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3, 8-27).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光山金氏 禮安 派宗家 所藏本, 寶物 第1019-1-5號>.

5. 結論

이상에서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을 고찰한 바, 이를 요약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歷代明鑑」은 연산군 5년(1499) 12월에 洪貴達과 權健 및 成倪 등이 왕명을 받들어 中朝에서 찬집된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조선에서 찬집된 「帝王后妃明鑑」을 저본으로 하여, 역대의 君主·后妃·臣下들의 規範이 될 만한 言行과 事跡에서 그 切要의 撮錄과 繁蕪의 刪削 그리고 條目的 刪去와 새로운 文段의 添入 등을 통하여 後世에 規戒로 삼을 수 있도록 重撰한 도합 27권 巨帙의 鑑戒書이다.

(2) 「歷代明鑑」은 <君鑑>·<后妃鑑>·<臣鑑>으로 편차되어 각 鑑의 아래에 다시 ‘善可爲法’과 ‘惡可爲戒’로 세분되어 唐·虞·北朝·隋·唐·五代·宋·遼·金·元·大明 등 각 朝代別 해당 인물들의 言行과 事跡이 수록하고 있으며, 32朝 214人的 ‘善可爲法’과 27朝 107人的 ‘惡可爲戒’ 등 도합 321人的 事跡이 수록되어 있다.

(3) 「歷代明鑑」은 연산군 6년(1500) 7월에 補字가 混入된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이후 더 이상의 刊行은 없었으며, 그 연유는 廢主時期의 撰集이라 忌避된 때문이었던 듯하다.

(4) 寶物本 「歷代明鑑」은 전질 27권 중 권4-7의 본문이 缺失되어 있고 반면에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은 권1-4의 本文만 殘存되고 있어, 現傳하는 「歷代明鑑」의 판본으로는 권5-7의 부분을 제외한 精確한 本文은 알 수 있으나, 缺失된 권5-7의 精確한 本文은 알 수 없다.

(5)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 권1-4에는 唐·虞·夏·商·周·西漢·東漢·南北朝·唐·五代·宋·金·元 등 15朝 38君主 253條目的 ‘善可爲法’의 善迹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그 중에는 寶物本에서 결실된 권4의 宋(太祖·太宗·眞宗·仁宗·神宗·孝宗·理宗)·金(世宗)·元(世祖·仁宗) 등 3朝 10君主 87條目에 해당하는 ‘善可爲法’의 本文이 殘存되고 있어,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의 價値는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6)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은 卷頭의 內賜記와 內賜印을 통하여 연산군 8년(1502) 3월에 당시 承文院判校였던 固城 李滋에게 內賜된 것임을 알 수 있고 王命을 받들어 시행한 右承旨는 申用漑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卷頭의 5顆의 印文을 통하여 본서는 長水 黃養善의 舊藏本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李滋에게 內賜된 본서가 어떤 연유로 黃養善의 家門으로 傳入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조차 어렵다.

(7) 大邱가톨릭大學校 所藏本 「歷代明鑑」은 缺失된 原文을 보완할 수 있는 점, 內賜本으로서 傳來가 확실한 점, 朝鮮初期의 金屬活字로 印行된 점 등에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管理·保存할 만한 충분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高靈申氏인터넷族譜編纂委員會 編, 『高靈申氏大同譜』.
<<http://www.yesjokbo.co.kr/jokboroot/default.asp> 檢索>
- 固城李氏族譜所 編, 『固城李氏族譜』. [刊行地不明]: [固城李氏族譜所], [高宗 11(1874)].
- 金宗直 著, 『佔畢齋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中宗 15(1520), 校訂補板 後刷]. 『韓國文集叢刊』第12冊 所收. 卷1. 序. ‘后妃明鑑序’條.
- 代宗 御撰, 『歷代君鑑』.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卷頭. ‘御製歷代君鑑序’條.
- 徐居正 著, 『四佳文集補遺一』.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肅宗 31(1705)]. 『韓國文集叢刊』第10-11冊 所收. 碑誌類. ‘崔文靖公碑銘(并序)’條.
- 宣宗 御撰, 『歷代臣鑑』.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卷頭. ‘御製歷代臣鑑序’條.
- 成倪 著, 『虛白堂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憲宗 8(1842)]. 『韓國文集叢刊』第14冊 所收. 卷9. 題跋. ‘歷代明鑑跋’條.
- 張福樞 著, 『四未軒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武 10(1906)]. 『韓國文集叢刊』第316冊 所收. 卷6. 雜著. 撫幽錄. ‘黃君在昊’條.
- 長水黃氏大宗會 編, 『長水黃氏世譜』. 大田: 回想社, 2000.
- 崔恒 著, 『太虛亭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肅宗 33(1707)]. 『韓國文集叢刊』第9冊 所收. 卷1. 序類. ‘后妃明鑑序’條.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成宗實錄> · <燕山君日記> · <中宗實錄>.
[編著者不明], 『國朝人物考』. [筆寫地不明]: [筆寫處不明], [筆寫年不明]. 卷43. 燕山時罹禍人. ‘李浣碑銘(黃孝獻撰)’條.
- 韓國古典翻譯院.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檢索.
-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卷1-3, 8-27.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光山金氏 禮安派宗家 所藏本, 寶物 第1019-1-5號>.
-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卷1-4.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大邱가톨릭 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 洪貴達 著, 『虛白亭文集』.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海君 3(1611)]. 『韓國文集叢刊』第14冊 所收. 卷2. 序. ‘歷代明鑑序’條.